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로 전남 섬 가치 알린다

내일까지 세계자연유산·여수세계섬박람회 주제 19개국 100여명 참여 해안쓰레기 활용 세계유산 상징 제작·강강술래 재현 등 프로그램 다양

전남도가 20일까지 8일간 신안과 여수 일원에서 국내외 19개국에서 모인 100여 명의 청년과 섬 주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제4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워크캠프는 세계자연유산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주제로 섬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기에 중점을 두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신안 도초도와 비금도, 여수 화정면 개도와 남면 금오도에서 각각 진행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13개국 47명의 참가자는

자비로 입국해 지난 13일 오전 목포역에 집결한 후 신안 압태도에서 여객선을 타고 도초도에 있는 신안 섬 생태연구소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도 초고등학교 학생과 함께 비금도 명사십리해변 정 화활동 후 수거된 해안쓰레기를 활용해 세계유산 상징 제작,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세계유산교육 등 주민과 참가자가 힘을 합쳐 세계자연유산 알리기에 나선다.

또 갯벌과 염전, 섬 음식 체험을 통해 섬의 다양한 가치를 배우고, 섬에서 전송되는 강강술래 재

현 등 섬의 자연과 전통문화를 알리게 된다. 부녀 회원들과 함께 여름철 식사가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주민을 초청해 각국 음식을 함께 나누는 등 마을주민과 교류 시간도 보낸다.

신안 세계자연유산갯벌과 섬에 대한 강의, 소금과 천일염 등 섬의 생태자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강의와 함께 도초도와 비금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17일부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부행사장으로 계획 중인 여수 개도와 금오도에서 섬 학생과 국제정원 만들기,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상징물 만들기, 비렁길과 청석포해안 정화활동 등 섬 주민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친다.

‘국제워크캠프’는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마을

을 복구하기 위해 처음 시작됐으며 현재 87개국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의 청년이 모여 함께 생활하는 자원봉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국제워크캠프 기구와 협력해 전 세계 청년과 전남 섬을 연결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최해 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세계자연유산으로서 전남 섬의 우수성과, 청년의 활동을 통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속 가능한 섬을 만드는 다양한 정책을 미래세대와 함께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집중호우 대비 돌봄가구 점검

전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강성휘)이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돌봄 집중호우 대응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서비스제공 대상 39가구의 하수구와 배수로로 막힘을 확인하고 오래된 축대, 담장 등의 안전시설물을 살피는 등 예방·점검에 들어갔다. 또 올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받았던 가구에 대해서도 전화통화를 통해 안부를 살피고 침수피해 예방이 필요한 가구가 있는지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성휘 원장은 “긴급돌봄 대상자들의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의료관광’ 몽골인들 입국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지난 15일 몽골 단체 관광객이 전세기를 통해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김영신 전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정희 무안국제공항장, 김기태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해 입국을 축하하고 몽골 기업 관계자들에게 전남도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관광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이번 몽골 기업 단체 관광객들은 광주에서 건강 검진을 시작으로 담양 죽녹원과 한옥호텔, 여수 해상케이블카, 오토 체험 등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3일간 둘러볼 예정이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서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 농업 모색

‘1.5도씨 포럼’과 국제심포지엄 유치 협약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사)1.5도씨 포럼과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모색하기 위한 2023 국제농업박람회 국제심포지엄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1.5도씨 포럼은 정부와 민간단체로 구성됐으며 기후변화 관련 산업 전망 분석을 통해 효율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민간 협력 법인이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한 치유농업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세계 치유농업 사례와 기후위기 대응 지

속 가능한 농업을 모색하고 한국 농업의 미래정책 비전을 제시할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2023 국제농업박람회 개막하는 10월 12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전 세계에 기후변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 VNU 설립자 샌딕(Sandeep Roy Choudhury)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벨기에의 치유농업, 이스라엘의 기후 스마트 농업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또 미국 캔터키지역 농업사절단이 패널로 참가

해 치유농업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구례군 치유농업 비전제시 섣 선도 진행된다.

박홍재 전남도 국제농업박람회 대표이사는 “1.5도씨 포럼과 협업은 치유농업과 기후위기 대응 농업 발전에 필요한 과제 발굴과 활동 방안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시아 최고의 농업학술교류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 국제농업박람회는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을 주제로 오는 10월 12일부터 11일간 전라남도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총력

보상 수준 상향·합증률 완화 등

전남도가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 경영 안정망이라는 제 기능을 하도록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폭우나 우박이 반복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안정적 농업 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료의 90%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전남은 지난해부터 가입 보험료 지원율을 10% 올려 9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인상에 따라 전남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62% 14만ha로,

전국 평균 50%를 훨씬 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만6000농가가 보험료 165억원(10%)을 납입하고 보험금 992억원을 받아 신속히 자연재해 피해를 복구해 농가경영에 복귀할 수 있었다. 전남도는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주요 건의 사항은 ▲과수 4종 적과전 보상수준 80%로 상향 ▲보험금 합증률 30%로 완화 ▲보험가입금액 산출기준 ‘직전 5개년 수확량 평균’에서 ‘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저값’ 제외 개선 ▲자기부담비율 15%로 인하 ▲병충해 양파 노균병, 밀 붉은곰팡이병 등으로 보장 범위 확대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천연물 표준화 지원 전문기관 설립 필요”

전남도, 농식품부에 건의

전남도가 전국 최대 천연자원 보유 지역으로서 ‘세계 천연물산업의 중심지 도약’ 비전 실현을 위해 농업축산식품부에 표준화 지원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을 건의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흥군과 함께 그린바이오 기업 현장 간담회를 지난 12일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기연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장, 김성 장흥군수, 윤호열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바이오에프디엔씨, 산야초마을을 비롯한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는 천연물을 포함한 그린바이오산업을 중점 육성

위해 필수적인 표준화 지원 전문기관 설립을 건의했다.

이상연 전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장은 “전남은 대한민국 천연물산업을 이끌 최적지로, 정부 정책에 따라 천연물을 포함한 그린바이오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라며 “표준화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계약재배, 스마트팜을 연계한 농·가·기 간 상생 모델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농식품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소개, 김기연 팀장 주재로 천연물, 미생물, 식품소재 등 분야별 기업 애로사항 청취, 농산물의 소재화를 위한 계약재배, 수출지원 등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 등이 이뤄졌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